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세계관

소개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우리의 사명

성경적 세계관 센터의 사명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게 하고 그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 및 공공의 광장에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수호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 자신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다음 질문들을 포함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 우리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희망이 있습니까?
-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의 진리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할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소개:
모든 것을 보는 렌즈를 정제하기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 2023 가족 연구 위원회
모든 권리 보유.
미국에서 인쇄됨

목차

세계관의 간략한 역사	2
세계관 정의	3
모든 세계관이 답해야 하는 질문	5
다섯 가지 주요 세계관	6
큰 질문 #1: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11
큰 질문 #2: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9
큰 질문 #3: 희망이 있습니까?	27
큰 질문 #4: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36
혼합주의: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세계관	45
성경적 세계관을 칭찬하는 네 가지 증거	48
미국과 교회의 세계관 현황	54
성경적 세계관 구축	55
성경적 세계관의 초석	61
결론	62
참고 문헌	64



세계관에 대한 소개:

모든 것을 보는 렌즈를 정제하기

데이비드 클로슨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집합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교리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히 공식화되고 일관된 세계관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늘날 가장 유명한 세계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각 세계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다음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 삶의 기원과 목적,
 - 악의 존재,
 - 희망의 본질, 및
 -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
- 성경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사례.
- 미국과 교회의 세계관 현황에 대한 분석.
- 조지 바나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성경적 세계관의 일곱 가지 초석"(즉, 받아들일 경우 본질적으로 "성경적 사고와 생활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¹

세계관의 간략한 역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것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독일 낭만주의로 알려진 지적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독일어 *Weltanschauung*에서 파생된 것으로, *Welt*(세계)와 *Anschauung*(전망)의 합성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1790년에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여 개인의 세계 인식을 지칭했습니다. 한 세대 후,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1813~1855)는 개인의 자기 이해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관점과 관련하여 세계관을 사용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세계관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합한다고 믿었습니다.²

19세기 말경, 기독교 사상가들은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할 때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그렇게 한 사람 중에는 제임스 오르(1844~1913)와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가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이자 교수였던 오르는 기독교가 인류의 모든 주요 관심사를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카이퍼는 특히 칼빈주의 기독교가 "모든 인간 존재의 세 가지 근본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우리의 세계관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조직하고, 규제하고, 확립합니다.

관계, 세상과의 관계³를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인 세계관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요컨대, 두 사람은 기독교가 현실에 대한 완전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접근 방식은 프란시스 셰퍼(1912-1984), 칼 F. H. 헨리(1913-2003), 찰스 콜슨(1931-2012) 등 다른 사상가들에 의해 20세기와 21세기로 이어졌습니다.

세계관 정의

연구자 조지 바나에 따르면 세계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에 대응하는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 필터"입니다.⁴ 다시 말해, 우리의 세계관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조직하고, 규제하고, 확립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이며, 인터바서티 프레스의 전 편집자인 제임스 사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이란, 현실의 기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관되게 또는 일관되지 않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는 일련의 전제(참일 수도, 부분적으로 참일 수도, 완전히 거짓일 수도 있는 가정)로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신념,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⁵

사이어에 따르면, 세계관은 현실에 대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과 지향으로 구성됩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전제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유념해야 할 세계관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인 세계관

세계관은 단순히 인지적 또는 지적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 관점을 포함합니다. 세계관은 머리와 가슴의 문제입니다.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하는 세계관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세계관이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계관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이 만든 특정 가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질서화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각 개인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이 항상 논리적으로 일관되거나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1%만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62%는 "믿음을 갖는 것이 당신이 가진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조지 바나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42%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포괄적인 종교적 사고에 동의한다고 연구진에게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큼 높은 점수를 받은 52%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데, 이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원죄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모순되는 개념입니다.⁶

게다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항상 일관되게 적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 행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특히 누군가가 먼저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하는 경우, 부정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이 답해야 하는 질문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씨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 우리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희망이 있습니까?
-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러한 질문들의 보편성과 근본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고 일관된 답을 얻기 위해 충분히 오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리듬과 삶의 요구에 쉽게 산만해지고 모든 일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합니다. 종종 삶의 목적, 의미, 현실에 대한 큰 질문은 무언가가 일상을 방해하거나 위기로 인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기 전까지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모든 세계관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세계관

다음은 기독교, 이슬람교, 범신론, 자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가장 유명한 다섯 가지 세계관과 각 세계관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이러한 세계관들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세계관을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려 깊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라는 이름과 접미사 -ian("같은 자질을 갖다")을 결합하여 파생되었습니다.⁷ 요컨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며,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⁸ 기독교는 유신론적 종교입니다. 유신론적 종교는 세상과 구별되는 신(또는 신들)의 존재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분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일신 종교입니다.⁹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격적(즉, , 사람이 알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며 삼위일체적(즉, , 세 위격 안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¹⁰ 기독교의 신성한 문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기독교에는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다양한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즉, 히브리어 성경 또는 타나크라고도 알려진 구약 성경)에서 기원을 두고 있으며 성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과 유대교 세계관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두 종교 모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창조)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죄)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두 종교는 희망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선택된 자'라는 뜻의 마시아흐)로서 소망을 두는 반면, 유대교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아직 오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관 사이의 공통점은 종종 "유대-기독교"라는 형용사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연결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믿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복종'을 의미하는 아랍어 *아슬라마*에서 유래)은 7세기 아라비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c. 570-632)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가장 신성한 문서인 꾸란(아랍어로 '암송'을 뜻함)에 종교의 신념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슬람은 신, 즉 알라(신을 뜻하는 아랍어)에 복종하는 것을 피조물의 주된 목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알라는 삼위일체적이거나 또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¹¹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랍어)이라고 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여 이슬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¹² 이슬람은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널리 퍼져 있지만 중국, 유럽, 아프리카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두 주요 종파가 있습니다. 수니파 무슬림은 무슬림의 85~90%를 차지하며, 시아파 무슬림은 약 10%를 차지합니다.¹³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모두 종교의 기원을 무함마드의 계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은 누가 무함마드의 합법적인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수니파로 알려진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는 예언자의 가장 유능하고 경건한 추종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시아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선지자의 가족 중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그룹 간의 다른 차이점은 이차 이슬람 문학의 권위 정도와 종교적 위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관한 것입니다.¹⁴

범신론

영어 '범신론'은 그리스어 어근 **판**(모두)과 **테오스**(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신)에서 파생되었으며,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범신론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신념 체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신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그룹으로 요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약속을 공유합니다.



1. 범신론자들은 우주를 경외하며 우주가 경외와 경이로움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 범신론자들은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인 신이나 사후에 인류를 심판할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 전체가 신입니다. 다시 말해, "현존하는 우주에 나타나는 물질, 힘, 법칙을 합친 것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⁵는 것입니다.
3. 범신론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윤리)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4. 범신론자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으며, 죽음은 개인 존재의 종말(일부 범신론자들은 환생의 형태를 믿기도 하지만)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범신론자들은 우주가 영혼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적 범신론자들은 정신과 물질이 별개의 물질이며 우주에는 일종의 우주적 영혼이나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반면, 물리론적 범신론자들은 우주가 하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¹⁶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인 힌두교에는 범신론적 사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신론적 힌두교의 대표적인 예로는 모든 것이 신 또는 궁극적 실재(브라흐만)의 일부라고 가르치는 '아바이타 베단타'가 있습니다.¹⁷ 범신론적 사상은 시크교, 도교, 유교, 수피즘(이슬람 신비주의의 한 형태)에도 존재합니다.

자연주의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서는 자연주의를 "과학적 법칙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교리"로 정의합니다

¹⁸. 자연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에는 다양한 이념적 분파와 표현이 있습니다. 유물론, 사회 다윈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 **유물론:** 자연주의는 모든 것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유물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적인 것만 (즉, 질량과 부피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유물론자들은 우주의 모든 것,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이 물질과 에너지로 환원되거나 환원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사회적 다윈주의:** 이 이론은 찰스 다윈(1809~1882)이 자연에서 동식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한 것과 동일한 법칙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자연 선택(즉, , "적자생존")과 같은 진화 이론은 인간의 상호 작용과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속적 휴머니즘:**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성을 모든 것의 척도(예: , 진리, 도덕성)로 가정합니다. 이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서도 도덕성과 개인적 성취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의 존재를 거부하고, 현생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현생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¹⁹
-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사회 경제적 파생물인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중반 칼 마르크스 (1818-1883)에 의해 주로 발전된 사상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주제는 계급 투쟁으로,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으로 정의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파생물로는 사회 문제가 기존 권력 구조의 결과라고 믿는 철학인 비판 이론 (비판적 인종 이론 포함)이 있습니다. 비판 이론은 이러한 구조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철학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로 정의되는 지적, 철학적 운동입니다. 17~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서 시작된 모더니즘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확립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를 결정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더니즘이 객관적 진리의 원천으로서 신적 계시(예: 성경)를 거부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선구자로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1889-1976)와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를 들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교리는 관점주의(진리는 각 개인의 관점에 달려 있으며, 고정된 본질이나 '사실'은 없다)²⁰와 해체주의(쓰여진 문서는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는 권력 연극의 표지로, 진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배를 행사하고 확장하는 수단이다)²¹입니다.

혼합주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계관 중 하나는 실제로 두 가지 이상의 세계관이 혼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혼합을 혼합주의(개인적 선호에 따라 신념과 가치가 혼합되어 구성된 세계관)라고 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세계관은 종합적으로 대부분의 신념 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며, 심지어 하이브리드 세계관도 이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세계관은 현실과 세계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도 다릅니다.

큰 질문 #1: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섹션에서는 다섯 가지 세계관 각각이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지 살펴봅니다. 이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 하위 질문으로 나뉘 수 있습니다.

- 우리(그리고 세상)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합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와 생명의 기원과 의미

생명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은 성경의 첫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²²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무(無)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며 (라틴어로 *ex nihilo*), 히브리어 1장 3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신다고 말합니다.²³ 창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중요한 함의는 창조주가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달리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하며, 무한하고, 전능하고, 자립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 창 1:26-27). 고대 왕이 자신의 형상을 새기고 통치를 상징하는 동상을 세운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그분의 성품의 측면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내면의 이성적, 도덕적 능력인 양심을 부여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롬 2:15, 딤후 1:5).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보편적인 권리나 잘못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정신-물질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일부 세계관(고대와 현대 모두)에서는

물리적 영역을 본질적으로 더럽혀진 것으로 보거나 인류가 초월해야 하는 환상으로 보는 반면, 성경은 창조의 선함을 긍정합니다(창 1장).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살전 5:23).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관점에서는 육체를 영혼이 탈출해야 하는 감옥으로 보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의 선함을 긍정합니다.²⁴

성경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에 따르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²⁵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거나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며, 당장의 직업이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 목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며, 그분의 성품을 삶으로 반영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우연이 아니며,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슬람과 삶의 기원과 의미

이슬람은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치지만, 이슬람은 기독교와 정확히 동일한 창조 이야기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설명 간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각 세계관의 개별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알라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며 우주와 지구를 존재하게 하신 전능한 창조주입니다(꾸란 2:117). 꾸란에는 자세한 창조에 대한 기록이 없고, 꾸란의 구절마다 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다르지만, 무슬림의 일반적인 믿음은 알라가 6일 또는 일정 기간(아랍어로 ‘하루’는 영겁 또는 모든 기간을 의미할 수 있음)에 걸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²⁶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성경의 기록(창 2:2-3)과 달리 꾸란은 “알라는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육일 동안에 창조하심에도 전혀 피곤하지 아니하셨노라”(꾸란 50:38)고 기록합니다.²⁷ 이 진술은 성경의 창조에 대한 설명과 대조하여 유대 기독교의 신 개념보다 우월한 알라를 제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아담을 자신의 그림이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이 가르침이 알라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라는 데 동의하지만, 인간이 알라를 어떻게 독특하게 형상화하거나 묘사하는 지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²⁸ 또한, 꾸란에는 이브의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알라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는 꾸란에서 가르치고 무함마드의 삶에서 본을 보인 그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모든 무슬림 남성과 여성은 개인 무슬림과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를 식별하는 종교적 헌신의 다섯 가지 기본 행위인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슬람과 희망에 대한 논의에서 이 다섯 가지 기둥을 살펴볼 것입니다.

범신론과 생명의 기원과 의미

범신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²⁹ 이러한 선택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주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일부 범신론자들은 우주는 시작이 없었으며 항상 존재해 왔다고 믿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자체 이전에 어떤 원인(예: 외부의 창조자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우주는 저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범신론자들은 우주는 스스로 '창조'되었거나 무(無) 또는 사실상 무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예: , '빅뱅'). 우주가 항상 존재했던 양자 진공 상태에서 출현했다면, 이 견해를 고수하는 범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진화가 생명체 사이에서 일어난 이후의 발전, 변화 및 진보를 담당하는 힘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 우주는 공유된 기원/물질에서 발산됩니다. 일부 범신론자들은 우주가 세계의 통일 원리로 남아 있는 공통의 기원 또는 단일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발산론으로 알려진 이 우주론은 우주가 하나의 신성한 기원 지점에서 진행 또는 연속적으로 "바깥으로" 계속 증식하고 흐른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물질, 즉 물질 세계입니다.³⁰ 이 견해는 창조된 세계가 "심히 좋았더라"(창 1:31)는 기독교의 견해와 다릅니다. 발산주의와 유사한 기원설이 있는 세계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교는 도,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 먼저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그리고 "셋이 모든 존재를 창조한다."³¹고 주장합니다.
 - 힌두교 전통에서는 브라만이 우주의 결속적인 통일체 또는 궁극적인 실체라고 믿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브라만의 비인격적 신 또는 '힘'이 스스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³²

세계 범신론 운동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폴 해리슨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범신론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해리슨에 따르면, "빅뱅 이전, 나노초의 아주 작은 순간 이전의 우주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미스터리인 '무(無)'가 아니라 유(有)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³³

세계 범신론자 원칙 선언문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범신론적 개념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장엄한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지닌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보존”할 책임, “모든 생명체를 연민과 존중으로 대할 의무”, “현실을 존중하고, 감각의 증거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과학의 끝없는 탐구에 마음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³⁴

그러나, 범신론자들은 인간의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인지 개인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이원론적 범신론자들은 우주에 의식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인간은 이 목표를 향해 우주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은 우주에는 외부적인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해리슨은 이러한 관점을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은] 인간의 삶이 신이나 우주의 정신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어떤 외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³⁵와 같이 설명합니다.

자연주의와 생명의 기원과 의미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생명은 물리적 세계를 통해 이해됩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 천사, 악마를 포함하는 종교 체계를 만들 수 있지만, 자연주의는 초자연적인 신이나 영혼은 없으며 물질과 에너지의 물질적 요소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³⁶

많은 자연주의자들은 생명의 기원과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에 의존합니다. 이 이론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우주적 사건(‘빅뱅’이라고도 함)이 일어난 후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진화 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우주적 사건 이후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이 자기 복제 분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 선택, 무작위 돌연변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분자의 유전적 변이 덕분입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 저서 *종의 기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유명한 자연 선택은 한 종 내에서



유리하거나 바람직한 형질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고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메커니즘과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진화 생물학이 오늘날 존재하는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자연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생명의 시작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1998년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의 우아한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대부분은 생명의 기원 이후, 진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났고 지구가 매우 다른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아직 완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어느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³⁷라고 이를 인정했습니다.

요컨대, 모든 자연주의자들이 생물학적 생명의 기원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생명이 시작되면 수십억 년에 걸친 자연적 과정이 오늘날과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자연주의자들에게 인류를 포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궁극적으로 순전히 물질적 과정의 산물입니다. 자연주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의 논리적 확장은 많은 자연주의자들이 생명에 보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이 바람직한 정신 상태를 달성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요컨대, 자연주의 내에서는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지에 대한 상반된 개념이 존재하지만, 의미와 목적이 종교적 가르침이나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³⁸

사회 다윈주의는 인간 문명도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자연 선택의 법칙을 적용받는다라는 이론으로, 적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에서 삶은 “약자”를 제거하고 “강자”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문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존하고 심지어 지배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³⁹ 다른 자연주의자들은 더 이타주의적이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삶의 기원과 의미

포스트모더니즘은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세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참된 설명을 주장하는 모든 체계를 의심스럽게 여깁니다. 철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1924~1998)는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메타내러티브에 대한 불신이라고 정의합니다.”⁴⁰ (메타내러티브는 사물이 어떻게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메타내러티브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원이나 창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과학 이론조차도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⁴¹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중요한 기원 이야기를 거부하지만,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저술에서 진화에 대한 친화력이나 인식을 드러내는 예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⁴² 예를 들어, 철학자 리처드 로티(1931~2007)는 자연 선택을 옹호하는 데넷의 1995년 저서 *다윈의 위험한 생각*을 극찬했습니다.⁴³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던 세계관에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개인의 관점이나 이해 관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조건을 정하거나 표준을 지시하는 외부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인류의 유일한 진정한 의무와 책임은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질문 #2: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섹션에서는 다섯 가지 세계관 각각이 악에 대해 믿는 것과 각 세계관이 세상의 고통과 고통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일부 세계관에서는 악이 환상이라고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우리 내부에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악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과 최초의 인간 부부를 창조하신 역사적 기록을 읽습니다. 도덕적 선택권을 부여받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아담과 이브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고통과 악이 없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감추셨다는 타락한 천사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한 번의 반역 행위는 모든 피조물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인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손상시켰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죄(즉,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에게 대물림되었는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와 같이 설명합니다. 전 인류는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경고하셨듯이, 죄의 결과는 육체적, 영적 죽음입니다(롬 6:23).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분리는 창조 세계 전체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 외에도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일은 좌절과 무익함에 괴로워졌으며, 출산은 고통스러워졌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갈등과 경쟁으로 괴로워졌습니다. 폭압적인 독재자, 대량 학살, 기술의 파괴적인 사용, 권위의 오용, 질병과 질병의 만연은 죄가 우리 삶을 괴롭히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요컨대, 비탄, 고통, 아픔은 이제 인간의 상태를 특징짓는 요소이며, 성경이 말하듯이 피조물 자체는 죄의 무게로 인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롬 8:22).⁴⁴

성경의 세계관은 악에 대한 주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악에 대해 하나님을 재빨리 재판에 회부하지만, 성경은 악이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한 인류의 결정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은 신이 아닌 인간에게 있습니다. 신학자 필립 라이켄은 이를 간단하게 "우리가 모든 잘못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⁴⁵라고 설명합니다.

이슬람과 악

꾸란에 따르면 악은 사탄이 알라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담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기를 거부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의 오만과 불순종 때문에 사탄(이블리스라고도 함)은 심판의 날까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꾸란 2:34).⁴⁶ 사탄은 이제 이 땅을 돌아다니며 알라에 대한 불신앙을 통해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꾸란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알라의 명령에 행복하게 순종하며 낙원에서 살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탄은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라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을 용서하셨지만, 이후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보내져 악의 영과 싸우고 알라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또 다른 유혹에 직면해야 했습니다(꾸란 7:20-25).

무슬림의 삶은 사탄과 타락한 외부 영향에 맞서 싸우는 것이 특징이지만, 많은 무슬림은 이슬람이 인류가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본래의 성품'이라는 뜻의 아랍어인 *피트라*, 꾸란 30:30)로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이



전해는 아담의 죄악된 본성이 그의 후손에게 대물림된다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원죄 개념과 대조됩니다. 그러나, 꾸란은 갓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알라를 믿는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⁴⁷ 피트라 (즉, 무슬림으로 자랐고 거짓 신님과 신조를 가르치지 않은)에 따라 양육된 어린이는 다른 종교, 악마 또는 진(아래에서 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에 현혹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이슬람 교리인 알카다르 (힘)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이 알라의 후원 아래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의 삶의 목표는 알라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므로, 무슬림은 알라가 고통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고 순종을 독려하며 불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알라는 교육과 처벌을 위해 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무슬림은 알라에 대한 순종으로 알 수 있으며, 알라는 악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복종하는 무슬림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신실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라에 대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쉬르크 알 아크바르)이며, 인간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이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⁴⁸

꾸란은 또한 알라가 연기 없는 불로 창조한 진("숨겨진"에서 유래)으로 알려진 영적 존재 부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꾸란 55:15). 그들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꾸란 72:10-18). 진은 알라를 숭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지만, 많은 진이 사탄의 유혹에 가담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맹"이 되었습니다(꾸란 51:56, 7:27). 진은 알라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서구 이외의 무슬림 문화권에서 질병과 기타 불행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됩니다.⁴⁹

범신론과 악

범신론의 악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인격적인 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 종교가 고통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겪는 결과 또는 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데 따른 벌로 여기는 반면, 범신론자들은 고통과 상처, 괴로움을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쓰나미와 같은 자연 재해로 나타나는 악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비극에는 더 깊고 중요한 목적이 없습니다. 즉, 악은 복수심에 불타는 신이나 타락한 천사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범신론에서 악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일부 범신론자들은 악이 신성한 통일성의 일부이거나 그 표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⁵⁰ 다른 사람들은 악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유발하거나 기여하는 현상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라벨 또는 범주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철학자 베네딕트 드 스피노자(1632-1677)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선 또는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활동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도움을 주거나 방해할 때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쾌락이나 고통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선 또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은 실제로는 덜 선한 것이므로 이성의 지도 아래 우리는 더 큰 선과 더 작은 악만을 구하거나 추구합니다."⁵¹라며 반영했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쾌락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무엇이든 악입니다.

범신론의 영향을 받은 일부 종교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현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음 생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인과 법칙인 업보의 관점에서 악을 설명합니다. 요컨대,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면 미래에 그 결정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범신론에는 대부분의 종교에서처럼 전통적인 '악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신론은 인격적인 신을 전제로 하므로 "신이 있다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해결해야 하는 반면, 범신론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애초에 악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신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불리는 것은 세상의 사회적, 물리적 구조에 대한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일 뿐이며,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이 섬기거나 숭배해야 하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해방감을 느껴야 합니다.

자연주의와 악

자연주의는 자연적, 도덕적 악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과학 법칙과 자연적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자연주의 세계관을 신봉하는 많은 주요 무신론자들은 자연적 악의 존재가 진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나는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단지 진화적 편의일 뿐, 실제로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⁵²라고 말합니다. 도킨스에게 쓰나미나 질병과 같은 상황은 도덕적 의미가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즉, 자연주의의 자연악에 대한 평가는 존재 자체가 자발적인 상황과 진화적 발전의 산물이므로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삶의 유감스러운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1949~2011)를 비롯한 많은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악을 종교 탓으로 돌리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신봉합니다. 예를 들어, 히친스는 "종교는 수많은 잔인성과 잔학 행위에 대한 신성한 제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독살한다"(그의 책 제목 중 하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히친스에 따르면 종교적 도덕 규범은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탐욕과 폭력을 조장하며 "문명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인 됩니다⁵³.

악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것은 도덕적 의무의 문제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더 높은 초자연적 존재, 즉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도덕, 더 구체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근거로 삼습니까? 예를 들어, 좋은 시민이 되거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우주 외부에는 권위 있는 법률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결과입니다. 즉, 인간이 '윤리적'이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생존과 물질적, 관계적 이익을 얻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자연주의자들은 윤리적 행동에 대한 설명에서 신중한 원칙이 필연적으로 집단 내 관계를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도덕 규범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집단 내 행동을 규율하는 도덕 규범을 만듭니다.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동체 내부에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범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은 몇 가지 원칙이 시대와 문화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예: 살인이나 도둑질 금지). 자연법이라고 부르든 상식이라고 부르든, 이러한 원칙은 사회에 질서를 제공하므로 채택됩니다. 많은 자연주의자들은 이러한 법칙이나 기준의 기원을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질서와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주요 자연주의자들은 악과 고통에 더 깊은 목적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인류가 발전하고 진화함에 따라 극복되기를 희망하는 삶의 구조의 일부로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악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악과 고통에 대한 관점이 형성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도덕성의 근거가 되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외부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위치에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각자의 관점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어떤 단일 관점도 다른 어떤 관점보다 옳을 수 없습니다.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인지된 악이나 불의를 다룰 때 권력 구조가 사회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비판 이론에 의존합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제도(특히 종교적 제도), 사회 구조, 지배적인 문화적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비판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누리는 사회 집단은 사회의 제도를 통제하고 이를 활용하여 타인(특히 종교적, 성적, 이념적 소수자)에게 자신의 도덕성을 강요함으로써 권력을 휘두르고 유지합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권력 역학을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로 간주합니다. 포스트모던 세계관에서는 객관적인 진실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규범' 또는 '표준'은 지배를 위한 인위적인 도구로 간주됩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진리 주장은 특히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⁵⁴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덕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여전히 악하거나 억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특히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악'이라는 서술어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칭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자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도덕적 진리가 지역 공동체에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상대주의, 즉 진리와 도덕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상대적이라는 견해는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와 리처드 로티 같은 일부 포스트모더니스트가 도덕적 행동의 근거로 삼는 방식입니다.⁵⁵ 이 프레임워크에서 잘못되거나 악한 행동은 공동체에서 합의된 도덕 규범(공동체 구성원의 선호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지역 공동체의 도덕 규범에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 경계를 설정할 권위가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주장에 반하는 것입니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맥락에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큰 질문 #3: 희망이 있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요 세계관은 악과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세계관에서는 악은 극복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세계관이 희망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기독교와 희망

기독교인들은 죄 많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로 인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엡 2:1-3). 인류의 기본 영적 상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입니다(롬 8:7). 대부분의 비기독교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롬 5:10).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함께 인간의 죄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끔찍한 영적 상태를 깨닫는다 해도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셨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바울이 기록한 구절에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복음'('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우앙겔리온*의 고대 영어 번역어)의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⁵⁷.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성경적 세계관이 제공하는 희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시며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합 1:13).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게 하려 함이로써" (딤후 1:9)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육신으로 구현됨, 빌. 2:7).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히. 9:25-26).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벽한 희생 제물을 제공함으로써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요일 4:10). 더욱이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고후후 5:18-19).⁵⁸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죄 많은 인류의 희망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죄인 개개인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로마서 10장 9~10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설명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결과(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포함)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든 죄인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 경험을 묘사하는 것처럼, 일단 사람이 믿음에 이르거나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악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성령과 영적 자원을 주십니다(요한복음 14:16, 26).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에 예배와 경외심, 감사로 응답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롬 8:38-39, 요일 5:11-13). 예수님은 희생적인 죽음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희생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만족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을 증명했으며, 신자들에게 죄가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줍니다(고전 15:14, 19).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가르칩니다(고전 15:20-22).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궁극적인 희망인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저주가 끊어져 슬픔이나 울음,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계 21:1-4).

이슬람과 희망

이슬람교에 따르면 알라에 대한 믿음과 선행을 통해 악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최종 결정은 알라의 특권이지만, 꾸란은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자들 사이에 속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꾸란 28:67). 요컨대, 어떤 사람의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크다면 알라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영생을 주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무슬림이 알라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샤하다 (신앙 고백)

무슬림은 이슬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조인 샤하다를 선포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메신저입니다."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은 무슬림이 기도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2. 살라 (기도)

무슬림은 성스러운 도시 메카 방향을 향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살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해 성사와 회개의 기도도 포함됩니다.

3. 자카트 (자선 기부)

무슬림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선 기부를 하는 자카트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부정과 숭배의 행위입니다.

4. 사움 (공복)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는 관습인 사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은 낮 시간 동안 음식, 물, 친밀한 관계를 자제합니다.

5. 하지 (순례)

하지는 음력 마지막 달 상반기에 성스러운 도시 메카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재정적, 신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이 여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라는 엄청난 금전적, 육체적 희생은 알라에 대한 무슬림의 헌신을 보여줍니다.⁵⁹

이슬람교는 신실한 무슬림이 낙원에 갈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은 알라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은 당연히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무슬림은 순교를 통해 목숨을 바치는 성전 또는 *지하드*(아랍어로 '투쟁' 또는 '노력'을 의미하며, 의를 얻기 위한 내적 노력 또는 알라의 적과 벌이는 외적 전쟁을 의미함)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⁶⁰ 꾸란에 따르면, 무슬림은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하면 낙원에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꾸란 9:111).

범신론과 희망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죄 사함을 받거나 개인적 구원을 얻거나 신의 은총을 받는다는 약속이 신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범신론이



인격적 신과 내세에 대해 거부하기 때문에 범신론자들은 유신론적 틀에서 생각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범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웰빙을 달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데 동의합니다. 마이클 레빈은 "범신론자에게 '웰빙'은 유일한 개인적 형태의 구원입니다."⁶¹와 같이 말합니다. 비록 범신론자들이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일련의 관행은 없지만, 많은 범신론자들은 자연과 연결되고 축하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⁶²

우주에 우주의 마음 또는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이원론적 범신론자들은 우주의 신성한 통일성으로 인식되는 것과 연결하여 영적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메리 포플린 교수는 "범신론자들은 궁극적인 영적 실체와 점점 더 하나가 되거나(불교의 열반), 신적 본성 또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함으로써(힌두교의 아트만, 영혼이 궁극적 실체인 브라흐마와 하나가 되는 것) 다양한 수준의 '영적 깨달음'을 얻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⁶³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상, 성서 연구, 성가, 신 숭배와 같은 훈련은 산만함을 차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데 유용합니다.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은 현재의 삶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며, 따라서 모든 신비, 경이로움, 풍요로움 속에서 현존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 해리슨은 이러한 관점을 잘 포착하여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에게 우주는 단순히 존재할 뿐입니다. 창조, 파괴, 진화의 끊임없는 과정에 관여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우주적 춤이며, 우리도 그 춤의 일부입니다.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축하합니다."⁶⁴라고 언급합니다. 비록 내세에 대한 전망은 없지만,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은 자연 및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습니다.

요약하면, 기독교나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익숙한 개인 구원 개념은 범신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범신론자, 특히 이원론적 범신론자들은 우주와의 재회를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됨으로써 죽음에 이르러 조화를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물리주의적 범신론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자연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인간과 비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자연주의와 희망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의 진화와 발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은 기술, 지성, 정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아픔과 고통이 번영과 번창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컨대, 자연주의자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933년 휴머니스트 선언문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적 형식과 사상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인류의 중심 과제입니다. 인간은 마침내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실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 성취를 위한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⁶⁵라고 말합니다. 많은 자연주의자들에게 '좋은 삶'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학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희망은 오랫동안 그래왔듯이 과학입니다."⁶⁶라고 설명합니다.

자연 과학(특히 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물리학)의 발전이 이전에는 골칫거리였던 의학, 과학, 기술 문제를 밝혀냈기 때문에, 자연주의자들은 더 많은 과학적 혁신이 질병, 기아,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연 과학의 발전은 응용과학(의학, 공학 등)과 사회 과학(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발전을 촉진하여 더 정의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과학에 대한 자연주의의 믿음은 희망이나 목적을 찾기 위한 종교적 설명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973년에 발표된 휴머니스트 선언문 II는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구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대신하여 "기술은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중요한

열쇠입니다.”라고 저자 폴 커츠(1925~2012)와 에드윈 월슨(1898~1993)은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성과 연민을 융합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야 합니다.”라고 이들은 덧붙입니다.⁶⁷

자연주의자들에게 과학에 대한 희망은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 발전에 의해 입증됩니다. 한두 세대의 사치품은 오늘날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사람들의 삶에서 특정 어려움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했습니다.

도킨스는 자연주의에 존재하는 희망에 대해 “다가오는 기후 변화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학입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것은 농업 과학입니다. 그리고 학문은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장엄함에 깊이 도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열망을 계속 채워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과학입니다.”⁶⁸라고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과학의 구원의 힘은 자연주의 세계관의 큰 희망입니다. 결국 유물론적 세계관은 물질적 해결책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희망

문화사학자 로버트 휴이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낙관주의가 제거된 모더니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⁶⁹ 모더니즘이 이성을 신뢰하고 과학적 방법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의심의 해석학’을 도입했습니다.⁷⁰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에 의구심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제시합니다.

포스트모던 세계관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억압적인 권위와 시스템을 전복하려는 목표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실제로,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요하는 규범과 기대를 거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표준에 저항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사회의 규범을 형성하는 기관, 특히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보기에 종교는 진보의 장애물이며, 사회가 인위적인 종교의 족쇄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좋습니다.⁷¹

권위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태도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가 잘 표현했습니다. 1977년 칼리지 드 프랑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푸코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무한히 죄를 짓자. ... 세상이나 세상의 권력에 의해 제정된 모든 법을 위반하고, 체계적으로 법을 어기며, 사실상 세상을 창조한 자의 통치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⁷²고 말했습니다. 푸코에게 법과 규범은 억압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권력자가 부과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없으며 의무를 요구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죄는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인류는 권력을 가진 자에 맞서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죄를 재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적인 가정과 규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또한 진리 주장, 특히 권위 있는 메타내러티브를 불신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언어의 의미 전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세상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학 분석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해체라고 하며 1960년대에 자크 데리다(1930~2004)가 도입했습니다. 데리다는 언어가 복잡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자가 의도한 의미는 독자가 문서를 해석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자의 배경, 문화, 상황은 독자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는 (있다면)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자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진리 주장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대중을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로 간주합니다.⁷³

요약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희망은 부분적으로는 억압적인 제도로부터 사회를 해방시키고 도덕적, 문화적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해체하고, 권력자에게 도전하고, 종교를 전복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기준, 의미,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큰 질문 #4: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음 섹션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세계관이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두렵다"고 인정했습니다.⁷⁴ 이러한 두려움의 주된 이유는 현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모든 세계관에는 종말론(즉, '마지막 것'에 대한 교리)이 있으며, 철학자, 과학자 및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과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기독교와 죽음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전 3:1-2)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롬 14:12).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또한 죽음이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정녕 죽으리라"였습니다(창 2:17). 인류의 죄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창 3:19, 22-24, 롬 5:12-21, 6:23). 신학자 마크 코펜거는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⁷⁵라고 요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절에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게 대해 알지 못하여 희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잠든 사람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 죽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기독교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잠드는 것'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육체적 죽음(생리적 기능의 중단)은 물질(육체)과 비물질(영혼)의 일시적 분리를 초래합니다. 시신이 매장, 화장 또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되는 동안 영혼은 시신과 분리되어 계속 존재합니다.⁷⁶

따라서, 성경은 육체의 파괴나 부패가 우리 존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까지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및 히브리서 12장 23절과 같은 구절에 근거하여, 기독교인들은 사망 시 신자의 영혼이 즉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⁷⁷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영혼이 부활한 육체와 재결합하는 육체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으로 부활할 신자와 지옥에서 영원한 정죄와 심판으로 부활할 불신자가 포함됩니다(행 24:15). 부활한 시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신자의 부활 몸은 지상의 몸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몸의 완전한 버전으로 새로워지고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전 1장. 15:42-44).

주목할 만한 점은 지옥의 교리가 많은 기독교 교단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2~3절, 마태복음 25장 31~4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10절, 및 요한계시록 20장 10, 14~15절에서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부정하는 보편주의와 다른 신학 체계는 성경 본문의 명백한 의미와 2,000년 동안의 교회 가르침에 모순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2%만이 자신이 죽은 후 개인적으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⁷⁸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악이 정복되고 죽음이 폐지되는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계 20:11-15).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믿음과 회개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죄를 계속 지은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은 영원한 저주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전가된 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 하나님 면전에서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⁷⁹

이슬람과 죽음

이슬람은 육체적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 신학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종말론적 부활까지 지속되는 중간 상태가 존재합니다. 중간 상태에서



무슬림은 일시적으로 육체가 없는 존재를 믿습니다. (알라를 믿지 않거나 선행을 충분히 하지 않아) 지옥에 가는 영혼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행과 순종으로 인해) 낙원으로 향하는 영혼들은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⁸⁰ 심판의 날(암 알-딘)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며, 알라는 각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여 모든 영혼의 낙원(잔나) 또는 지옥(자한남)으로의 행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낙원에 갈지 여부는 알라의 자비를 베푸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꾸란 3:115).

이슬람 종말론의 흥미로운 측면은 심판의 날에 이슬람과 꾸란의 진리에 대해 오도한 다른 사람들의 '짐' 또는 죄를 짊어지게 된다는 꾸란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꾸란 16:22~25). 매우 신빙성 있는 하디스(무함마드의 말과 행적에 대한 초기 기록)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심판의 날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무슬림의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⁸¹

이슬람에서는 낙원에 들어가려면 누군가를 알라와 거짓으로 연관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꾸란 4:36). 알라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회피(우상 숭배 또는 다신교)의 죄입니다. 회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며 지옥으로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피죄로 간주됩니다.⁸²

마지막으로, 무슬림 학자들은 지하드(즉, 알라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를 내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외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논쟁하지만, 꾸란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역사에는 그 이름으로 수행된 폭력적인 공격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⁸³

많은 이슬람 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순교자는 알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받는 영원한 행복의 장소인 낙원에 즉시 가게 됩니다.⁸⁴

요약하면, 무슬림은 지옥은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고문을 당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꾸란 2:39). 그러나, 무슬림이 알라에게 충실하고 다섯 가지 기둥을 준수하더라도, 심판의 날까지 최종적인 영원한 목적지를 알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 자신도 추종자들에게 “나는 나와 너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꾸란 46:8-9)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⁸⁵

범신론과 죽음

범신론자들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신론은 천국, 지옥 또는 다른 영원한 영역을 부정하는 것과 함께 인간 개개인의 불멸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많은 종교와 차별화됩니다.⁸⁶ 범신론에서는 사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은 우주가 하나의 근본적인 물질(성분)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에 따라, 죽음은 개인의 삶이 끝나고 원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 비물질적인 영혼이나 정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주의적 범신론자들에게, 죽음은 최종적이며 개인적인 여정의 종착역입니다.

물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적 불멸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비개인적 불멸에 해당합니다. 폴 해리슨은 “우리 몸의 자연으로의 회귀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작품과 기억이 살아남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종의 생존을 더한다.”⁸⁷고 설명합니다. 물리주의 범신론자들은 개인이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리슨은 “우리는 모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자녀와 가까운 친척을 통해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의 흔적, 우리가 창조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남긴 기억을 통해 살아갑니다.”⁸⁸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범신론자들은 사후에 그들의 시신이 자연과 재회할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고 화장이나 매장 시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최소한의 관, 숲속 매장 등).⁸⁹

둘째, 윤회를 믿는 이원론적 범신론자들은 죽음을 한 생의 끝이자 다음 생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이원론적 범신론은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영적 영역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내세에 대한 맥락은 이 세상입니다. 이 견해는 윤회를 믿는 힌두교와 불교와도 일부 유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인생의 목표는 고통과 끊임없는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⁹⁰ 마찬가지로, 힌두교에서는 목샤 (즉, 죽음과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⁹¹ 즉, 불교와 힌두교는 현세에서 벗어나 우주와 재결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이원론적 범신론자들도 윤회의 맥락이 현세라고 믿지만, 그들은 현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형태로 이 세상으로 돌아올 기회를 환영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높은 형태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나쁜 행동의 결과인 낮은 형태로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 합니다).

요컨대, 범신론은 죽음을 죄에 대한 형벌이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범신론자들에게, 죽음은 도덕적으로 무관하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폴 해리스는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 사이의 짧은 전환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의 그늘에서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⁹²라고 언급합니다. 즉, 범신론자들은 현재의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기에는 죽음이나 죄, 나쁜 선택, 업보로 인해 벌을 받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연주의와 죽음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육체적 죽음을 존재의 끝으로 간주합니다. 하버드대 철학자 로버트 노직(1938~2002)은 그의 저서 *탐구된 삶*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고찰합니다. 노직은 ‘무소멸’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본 후 “그런 이론을 믿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더 극명하지 않습니까? 이 생은 유일한 존재이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⁹³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죽음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을 나타냅니다. 노직 자신은 인류가 전적으로 유한하지 않다는 작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철저히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죽음을 최종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연주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의 핵심은 물질주의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람에게는 비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의 영구적인 소멸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기원전 341~270년)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메노에세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선과 악은 감각으로 구성되지만, 죽음은 감각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올바른 이해는 불멸에 대한 갈망을 없애기 때문에 삶의 필멸성을 즐겁게 만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덤 너머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잘못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연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의식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요약했습니다.⁹⁴

자연주의에 따르면, 물질 세계는 존재하는 전부이며 (영혼, 신, 내세, 영혼은 존재하지 않음), 죽으면 모든 사람이 소멸합니다. 사망 시 개인 소멸에 대한 믿음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옵션인 이기적 쾌락주의는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며 "하루를 잡아라",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와 같은 일반적인 만트라를 포용합니다. (비록 에피쿠로스는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라, 내일은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종종 여기지만, 숙취와 기타 질병이 자기 만족을 위해 선택한 쾌락을 상쇄하거나 압도할 수 있으므로 절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는 여전히 최대의 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모든 자연주의자들이 쾌락 추구를 중심으로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노력과 교육을 통해 세상을 개선하는데 헌신하는 보다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합니다. 삶의 짧음과 죽음의 유한성은 많은 자연주의자들이 미래 세대, 환경, 친구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죽음

포스트모더니즘은 죽음에 대한 최우선적인 설명이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후 세계나 환생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냉혹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은 두려움, 상반된 감정, 체념의 혼합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자 사이먼 크리츨리(Simon Critchley)는 죽음(그리고 다가오는 멸종)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에 대해, 크리츨리는 "철학의 주된 임무는... 우리를 죽음에 대비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일종의 훈련, 즉 내세에 대한 약속 없이 소멸의 공포를 직시하는 유한성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⁹⁵라고 씁니다. 물질적 우주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으며, 멸망은 인류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생산적이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메타내러티브에 대한 거부, 내세에 대한 부정, 물질적 우주에 대한 주장과 함께, 삶과 의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려줍니다. 크리츨리의 설명처럼,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음을, 오히려 무의미한 상황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무의미함에서 우리는 공동 존재의 평범함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창조합니다."⁹⁶ 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의 죽음에 대한 접근 방식은 자연주의적 관점(내세는 없으며 죽음은 최종적인 것임)과 유사합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삶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메타내러티브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음에 최우선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요컨대, 포스트모더니즘은 천국에 대한 희망은 제공하지 않지만, 그 신봉자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를 제공합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단계입니다.

혼합주의: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세계관

오늘날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세계관 중 하나에 딱 들어맞는 일관된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조지 바나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성인은 일관된 세계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상충되고 종종 화해할 수 없는 신념과 가치가 뒤섞인 혼합주의(syncretism)입니다. 2021년, 미국 성인의 88%는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⁹⁷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을 개발할 때 '스모가스보드' 또는 카페테리아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세계관의 측면을 골라 하나의 가이드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주의 세계관은 한 세계관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지적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세계관의 아이디어나 가치를 끌어들이는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의식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계관을 개발할 때 '스모가스보드' 또는 카페테리아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관을 골라 하나의 가이드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자신의 '나쁜' 또는 죄악된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극복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인 영적 인과관계 개념인 업보를 매력적으로 여깁니다. 미국인의 1% 미만이 동양 신비주의를 세계관으로 삼고 있지만, 57%는 업보를 믿으며, 이 중 33%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⁹⁸

혼합주의의 또 다른 예는 많은 기독교인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 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죄와 인간의 타락,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조지 바나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만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5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습니다.⁹⁹

혼합주의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의 지배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이(많은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모순된 믿음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바나 교수는 미국 문화에 만연한 비성경적 신념에 대해 "운명, 영성, 진리에 따른 경계, 도덕적 행동, 자산 관리 전략 등 미국인들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 이끌린다."라고 말합니다.¹⁰⁰ 일관된 세계관은 종종 우리의 행동에 불편한 요구를 하는 반면, 혼합주의적 세계관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감정, 욕구에 맞는 가치와 신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혼합주의가 만연한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세계관에서 진리의 측면을 감지하고 이러한 진리를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자연주의, 범신론,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두 성경과 신념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는 예배와 순종에 합당한 더 높은 존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연주의와 범신론은 (창조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창조된 세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적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관에 진리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통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과는 별개로 은혜와 축복을 포함하는 일반 은총으로 인해 비기독교인도 이성을 사용하여 세상의 참된 사실과 현실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롬 1:18-32). 이러한 진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진실한 신념은 인권 보호, 창조물 보호, 가족에 대한 충실함 등 이러한 신념을 포용하는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속화가 심화되고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와 세계관에 성경적 세계관의 교리를 통합하는 것은 인류의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세상을 이해하려는 열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선교학적, 복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합주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경쟁 세계관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견고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합적 세계관에 얽혀 있는 선하고 참된 사상을 되찾고, 그러한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귀속시키며, 그 속에 섞여 있는 비성경적 사상을 반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토론할 때 사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그들의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그들의 예배의 한 측면(미지의 신에 대한 제단)에 집중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시와 철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을 복음 전도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다른 세계관에서 발견되는 참된 또는 부분적으로 참된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칭찬하는 네 가지 증거

오늘날 수많은 세계관이 우리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칭찬하는 몇 가지 증거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변증가들은 성경적 세계관의 진실성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이유를 제시했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성경 자체, 고고학, 도덕, 과학이라는 네 가지 기본 증거에 집중할 것입니다.

성경 자체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

기독교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는 성경이 기독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진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벧후 3:16). 제이슨 리슬은 "이러한 진술은

성경의 내적 일관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을 적어도 증명합니다.”¹⁰¹라고 지적합니다. 성경 자체의 놀라운 일관성과 한결같은, 수백 개의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 한 저자가 “의도되지 않은 우연”이라고 부른 것을 포함하여, 성경 자체의 추가적인 증거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내부적 주장을 강화합니다.¹⁰²

일관성

성경의 고유성과 내적 일관성은 오랫동안 변증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꾸란이나 힌두교의 베다와 같은 다른 성서와 달리 2,0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가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내적 일관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사본 증거는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호머의 *일리아드* 사본은 약 643개이며, 가장 오래된 사본은 호머가 사망한 지 500년 후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경우 현존하는 사본은 5,600여 개로 모두 1세기 이후 100년 이내에 작성되었습니다.¹⁰³ 이것은 성경이 수세기 동안 정확하게 전해져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호머가 *일리아드*를 썼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성경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습니다.

성취된 예언

성경이 그 자체의 진실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와 완전한 유일성에 대한 증거로 성취된 예언을 친히 제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코”(사 46:9b-10a).

예언이 성취된 두 가지 예로는 이사야 53장/시편 22편과 마태복음 24:1-2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저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사 53:12b)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해서도 예언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이 쓴 시편 22편에는 십자가 형이 발명되기 몇 세기 전 십자가 형에 의한 죽음의 공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십니다(마 27:46).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는 다른 구약 성경 구절로는 시편 2:2, 16:10, 68:18, 69:4, 스가랴 12:10, 13:7 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1-2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설명하며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약 35년 후, 로마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포위하여 도시와 제2 성전을 평평하게 만들면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¹⁰⁴

고고학적 증거

역사 기록은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최근 고고학자들의 연구로 성서 기록의 역사적 세부 사항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고고학자들은 다윗의 도시에서 점토 불라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불라에는 "유다 왕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 아하스의 것"이라는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로안 비문(1880년 발견)과 함께 이 불라는 히스기야를 유다의 역사적 왕으로 묘사한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38:1.¹⁰⁵ 에 등장하는 그달리야와 유칼을 비롯한 다른 히브리 관리들의 이름이 새겨진 불라도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의 다른 역사적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961년,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한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빌라도 총독이 유대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데 동의합니다.¹⁰⁶ 1993년에 발견된 텔 단 비문은 다윗 왕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¹⁰⁷ 1847년 이라크 북부에서 발굴을 통해 이사야 20장 1절에 나오는 "앗수르의 사르곤"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었습니다. 1847년 이전에는 성경 외에는 사르곤에 대한 알려진 언급이 없었습니다.¹⁰⁸ 또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에 있었고,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으며, 벨사살 왕이 바빌론의 통치자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¹⁰⁹

가장 유명한 것은 1947년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의 일부가 포함된 수백 개의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완전 사본은 레닌그라드 사본(서기 1008년 제작)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의 대부분은 이 사본보다 1,2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이후 이 두루마리를 연구하고 후대의 문서와 비교한 결과 히브리어 성경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¹¹⁰ 이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의 신뢰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존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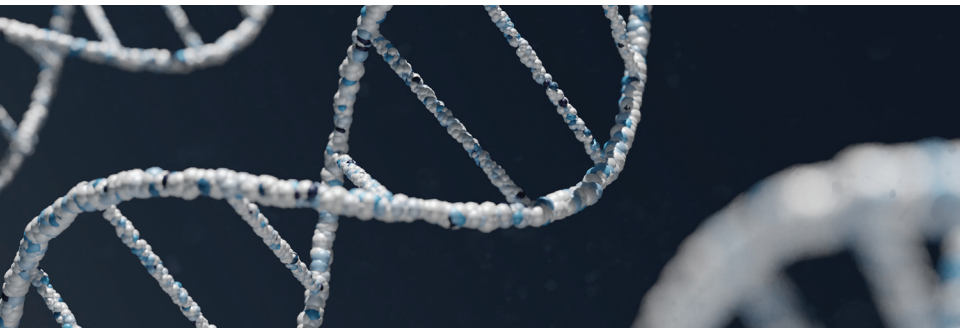
도덕적 증거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요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세계관에서는 도덕성이 진화, 문화 또는 개인적 선택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의 도덕성은 주관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되는 비인격적이고 가치 없는 과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성에 대한 인류의 기본적인 직관(즉, 도덕성이 객관적이고 분별 가능하다는 것)이 옳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¹¹¹

아기를 재미로 고문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도덕적 본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세상의 도덕적 규범과 질서를 증언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회에서 매우 유사한 도덕 규범이 존재하고 정의에 대한 열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도덕적 율법가가 모든 인간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심어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폴 코판은 "인격적이고 자각적이며 목적이 있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가치 있고 권리를 가지며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인간의 존재에 자연스럽게 필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¹¹²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입니다.

과학적 증거

기독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계의 중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작위적인 우연이 아니라 창조 당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가 우주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가르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과학적 발견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유사한 도덕 규범이 존재하고 정의에 대한
열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도덕적 율법가가
모든 인간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우주의 미세 조정은 중력 상수, 중력 대 전자기력, 우주의 질량 밀도, 우주의 팽창률, 초기 엔트로피의 정확한 값에서 볼 수 있습니다.¹¹³ 또한, 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충족되는 지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완벽한 거리에 있고, 자기장에 의해 유해한 태양 복사열로부터 보호되며, 단일 대기에 의해 따뜻하게 유지되고, 물과 탄소 등 생명체에 적합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¹¹⁴ 이와 같은 과학적 통찰력은 진화론과 같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계의 놀라운 수준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DNA의 복잡성

기독교 과학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또 다른 증거로 DNA(디옥시리보핵산) 과학을 지적합니다. 월터 브래들리는 "이처럼 놀라운 정보 저장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DNA 분자가 어떻게든 생명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로 부호화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학적 증거의 절정입니다."¹¹⁵라고 설명합니다. 즉, 유전자, 단백질, DNA 및 기타 미생물학의 발전은 성경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불신하기보다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창조성을 뒷받침합니다.



미국과 교회의 세계관 현황

성경적 세계관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조지 바나에 따르면, 2020년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이 6%에 불과해 불과 25년 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¹¹⁶ 바나가 2023년에 실시한 추가 전국 조사에 따르면, 그 사이 2년 동안 미국인의 4%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 그 수치는 더욱 감소했습니다.¹¹⁷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의 도덕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다른 세계관의 인기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수치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바나의 연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의 감소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의 37%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¹¹⁸ 2021년 연구에서는 복음주의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중 21%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낮은 수치를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복음주의 교회 신자의 81%와 비교하면,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지에 대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¹⁹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신학적 뉘앙스뿐만 아니라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52%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는 없다고 믿고, 43%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지었다고 믿으며, 42%는 성경을 주요 권위의 원천으로 거부합니다. 게다가, 61%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¹²⁰

성경과의 이러한 일관성 없는 관계를 고려할 때, 낙태와 결혼에 관한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이 자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호감을 잃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44%는 성경이 낙태 문제에 대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34%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¹²¹

다시 말하지만, 개별 기독교인이 신학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 복음주의 교회 신자의 거의 대다수가 성경의 권위와 신, 인간, 도덕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교회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성경이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해 철저하고 응집력 있으며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구축

성경적 세계관의 감소는 가장 젊은 미국 성인들 사이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18~29세 성인 중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¹²² 하지만, 바나의 연구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고 강력한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일찍 형성되는 세계관

수십 년에 걸친 세계관 연구를 통해 조지 바나는 사람의 세계관이 주로 생후 15개월에서 13세 사이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계관은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다듬어지지만, 13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됩니다.¹²³ 즉, 교회, 기독교 부모, 기독교 학교 및 사역 단체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고 싶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부모

미래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려면 기독교 부모가 가정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신 6:6-9).

교회, 청소년 그룹, 기독교 학교, 홈스쿨링 협동 조합에서의 교육은 부모의 사역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기관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자 훈련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아기에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적 진리를 전수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근본적인 관점을 재평가하여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자 훈련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다음으로 개인의 삶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디어 메시지, 공공 정책, 학교 교육, 또래 압력입니다.¹²⁴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적 원리를 심어주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은 이러한 영향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며, 때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 중 특히 학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초중고 기간 동안 교실에서 보내는 누적 시간이 16,000시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교실 수업이 부모의 제자 양육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목회자/사역 리더

목회자는 또한 성도들의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 21%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¹²⁵ 게다가,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복음주의 목회자 중 51%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²⁶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통계는 신학교, 성경 대학 및 교회의 많은 제자 훈련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며, 지도자들은 이러한 결점을 인정하고 사역과 목회 훈련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꺼이 재평가해야 합니다.

교회

교회는 세계관 형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강해 설교(즉, 성경 구절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회중에게 적용하는 설교), 성경 읽기, 연구, 암기, 예배, 기도, 전도, 금식과 같은 영적 훈련에 중점을 두면 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급한 필요로 인식하고 교회 내에서 성경적 원리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멘토링 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딤후 2:1-8 참조). 시간은 너무 짧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필요는 너무 극심하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이 반드시 세계관 형성에 맞춰져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현재의 사역 방식을 재평가하여 교회 일정의 모든 것이 제자 양육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흥 추종자

바나의 연구에서 얻은 또 다른 통찰력은 나머지 성인 인구보다 성경적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단체인, 신흥 추종자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통합 제자는 신앙을 삶의 모든 차원에 통합하고 완전히 형성된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인 반면, 신흥 추종자는 성경적 사상과 비성경적 사상을 혼합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신흥 추종자의 76%는 죄와 구원에 대해 주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창조, 역사에 대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은 2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계관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신흥 추종자의 취약한 부분을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 자원 개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흥 추종자들은 성경적 세계관의 일부 교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국 성인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그룹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성경적 세계관 결핍에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기회를 제공합니다.¹²⁷

신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에 점점 더 적대적인 시대에 기독교 지도자와 부모는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제자 양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꺼이 재평가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는 성경이 인생의 가장 큰 질문과 도전에 대해 철저하고 응집력 있으며,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쇠퇴를 되돌리려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세계관 개발과 형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부모, 교회 밖 단체, 기독교 학교(초중고교 및 기독교 대학)는 효과적인 제자 훈련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 교육은 세계관 발달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독교인들은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 위원회 선거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시스템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 분야에서 봉사하는 크리스천은 자신의 영향력, 자원,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성경적 원칙과 가치를 폄하하지 않고 홍보하는 프로그램과 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계 3:1-16, 약 1:22). 성경적 세계관의 교리에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의 세계관을 온전히 실천한다면, 그들의 삶은 역기능적이고 혼탁한 세상에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우리 시대의 중심 문제는 자유주의나 모더니즘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아닌 육체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경향이다]."128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의 놀이책으로 돌아가는 등 종교적 삶과 세속적 삶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현실 세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가 조명하고 답하는 질문은 너무 중요하고 포괄적이어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앎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안팎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¹²⁹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악의 근원을 알고 있으며,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포괄적인 타락을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 연민과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과 그 이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문제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초석

앞서 언급했듯이, 유감스럽게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바나의 2023년 연구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지면 관계상 바나의 연구 결과를 모두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최신 보고서를 요약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관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관에 일관성 없는 사고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신학적 기반이 세계관을 명확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몇 가지 기본적인 신학적 교리만 충실히 지켜도 안정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개인의 삶의 토대가 되려면 바나의 말을 빌리자면 “원칙에 대한 이해와 원칙에 부합하는 개인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신념에 대한 열정적이고 사려 깊은 소유권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¹³⁰ 따라서, 바나가 파악한 초석은 신념의 관점에서 설명되지만, 각 신념은 이러한 신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강력한 기초를 갖추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바나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의 7가지 초석은

1.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이해와 같습니다.
2.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가 있으며,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도덕적 고려와 결과가 따릅니다.
3. 우리 죄의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고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는 우리의 죄를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4. 성경 전체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도덕적 지침이 됩니다.
5.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며, 이러한 진리는 신에 의해 정의되고, 성경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대와 문화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6.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과 뜻과 힘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7. 이 땅에서의 성공은 생각과 말,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순종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를 충실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7가지 초석에는 성경,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 구원의 주요 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념이 자동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교리에 대한 사전 인식과 헌신 없이는 올바른 행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교리에 대한 사전 인식과 헌신 없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7가지 기본 가르침을 수용하는 성인 5명 중 4명 이상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석을 가르치고 이와 관련된 행동을 모델링하는 것은 제자 훈련과 세계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결론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계시하신 진리에 뿌리를 두고 그 진리에 의해 형성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4-27).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의 세계관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거나, 성경의 진리가 삶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은유적인 집을 지음으로써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일상
생활에 적용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전 2:6-16;
롬 8:5-6, 12:2).



데이비드 클로슨(M.Div.)은 가족 연구 위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 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며 성경적
세계관에서 생명, 인간의 성, 종교적 자유 및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글을 씁니다. 현재, 데이비드는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로라 그로스번트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 1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3 공개 #2: - 연구 결과 성경적 세계관 개발을 위한 최고의 출발점 확인",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3년 3월 14일, 1,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3/03/CRC-Release-2nd-2023-Final.pdf>.
- 2 필립 라이켄, *기독교 세계관: 학생용 가이드* (일리노이주 휘튼: 크로스웨이, 2013), 23-24.
- 3 제임스 W. 사이어, *코끼리 이름 짓기: 개념으로서의 세계관*, 2판 (다우너스 그로브, 일리노이주: IVP 아카데미, 2015), 32-33.
- 4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0 - 한눈에 보기: CRC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0년 3월 24일, 4,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0/04/CRC-AWVI-2020-Release 01-Worldview-in-America.pdf>.
- 5 사이어, *코끼리 이름 짓기*, 141.
- 6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1 - 공개 #5: 미국인들이 수용하는 가장 매혹적인 비성경적 사상 10가지,"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1년 6월 22일, 4,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1/06/CRC-AWVI2021-Release05-Digital-01-20210618.pdf>.
기껏해야, 인류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은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선하다"고 선언하신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 개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모든 응답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응답 의도와 상관없이 인류는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답한 것은 성경적 이해에 구멍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는 미국 세계관 연구소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조지 바나와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의 문화 연구 센터. 설문 조사에는 신념과 행동에 관한 8가지 범주로 나뉜 54개의 세계관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자는 설문 조사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rizonachristian.edu/category/crc/awvi/>에서 확인하십시오.

- 7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엘리야스 J. 비커만,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버드 신학 리뷰* 42, no. 2 (1949): 109-24, <http://www.jstor.org/stable/1507955> 참조하십시오.
- 8 콘래드 해켓과 데이비드 맥클렌든, "기독교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종교 집단이지만, 유럽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 2017년 4월 5일,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4/05/christians-remain-worlds-largest-religious-group-but-they-are-declining-in-europe/>.
- 9 이 출판물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표기될 때마다 성경의 기독교 신/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고유 명사 또는 소문자 '신'으로 지칭합니다.
- 10 기독교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한 가지 유용한 논의는 웨인 그루텐, *조직 신학: 성경 교리 입문*(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존더반, 1994), 226-61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11 이슬람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참조 안네마리 쉬멜 외, "이슬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23년 5월 20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britannica.com/topic/Islam>.에서 확인하십시오.
- 12 "변화하는 세계 종교 환경," 퓨 리서치 센터, 2017년 4월 5일,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7/04/05/the-changing-global-religious-landscape/>.
- 13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의 고대 분열," BBC 뉴스, 2016년 1월 4일,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16047709>.
- 14 엘리자베스 척,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NBC 뉴스, 2016년 1월 4일, <https://www.nbcnews.com/news/mideast/what-are-differences-between-sunni-shiite-muslims-n489951>.
- 15 윌리엄 L. 리즈, "범신론," *브리태니커백과사전*, 2023년 3월 2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britannica.com/topic/pantheism>.

- 16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폴 해리스, *범신론의 요소들: 자연과 우주의 영성*, 3판 (자체 출판, CreateSpace, 2013), 83-87쪽을 참조하십시오.
- 1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s.v. "Advaita",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2일, <https://www.britannica.com/topic/Advaita-school-of-Hindu-philosophy>.
- 18 *메리엄-웹스터*, s.v. "자연주의", 최종 업데이트 2023년 2월 27일,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naturalism>.
- 19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s.v. "세속주의", 최종 업데이트: 2022년 12월 9일, <https://www.britannica.com/topic/secularism>.
- 20 *신세계 백과사전*, s.v. "관점주의," 2023년 5월 8일 접속, <https://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Perspectivism>.
- 21 존 필립스, *지식 경합: 비판 이론에 대한 안내서* (런던: 제드 북스, 2000), 54.
- 2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영어 성경 인용문은 영어 표준판 (ESV)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23 기독교계에서는 지구의 나이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젊은 지구 창조론이 성경적, 지질학적, 역사적 증거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 입장에 대한 변호는 테리 모텐슨, "젊은 지구 창조론적 견해 요약 및 옹호", *Answers in Genesis*, 2011년 2월 16일, <https://answersingenesis.org/creationism/young-earth/young-earth-creationist-view-summarized-and-defended/> 참조하십시오.
- 24 아서 녹은 영지주의 사상의 특징을 "악의 문제에 대한 집착, 인간 환경으로부터의 소외감과 반동, 우주의 비밀에 대한 특별하고 친밀한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요약합니다. 아서 다비 녹, "영지주의", *하버드 신학적 리뷰* 57, 4호 (1964): 256를 참조하십시오. 영지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에버트 퍼거슨은 이원론, 특히 윤리적, 종말론적, 심리적 이원론이라는 추가 요소를 추가합니다. 퍼거슨에 따르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우주 이원론은 영지주의의 주요 교리입니다. 에버렛

퍼거슨, 초기 기독교의 배경, 제3판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Eerdmans, 2003), 308을 참조하십시오.

- 25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1648년 7월 28일, <https://www.apuritansmind.com/westminster-standards/shorter-catechism/>; 소요리 문답은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종교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 26 구란 7:54, 57:4, 41:9-12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후다, "이슬람의 우주 창조와 진화", 종교 배우기, 2019년 1월 17일, <https://www.learnreligions.com/creation-of-the-universe-2004201>을 참조하십시오.
- 27 무슬림은 알라가 복수형 일인칭 '우리'를 사용할 때 그분의 위엄의 복수를 의미하며, 이는 그분의 권능의 다중성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구란 50:38을 참조하십시오.
- 28 사히 무슬림 2612, 온라인: sunnah.com/muslim:2612e.
- 29 몇 가지 옵션에 대한 요약은 해리슨, 범신론의 요소, 38-41을 참조하십시오.
- 30 신세계 백과사전, s.v. "발산주의," 2023년 5월 8일 접속, <https://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Emanationism>.
- 31 도덕경 XLII, 온라인: <https://www.poetryintranslation.com/PITBR/Chinese/TaoTeChing.php#anchorToc42848744>.
- 32 스와미 크리슈나난다, "제1장",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 <https://www.swami-krishnananda.org/brdup/Brihadaranyaka Upanishad.pdf>를 참조하십시오.
- 33 해리슨, 범신론의 요소, 41.
- 34 "원칙 선언문", 세계 범신론 운동, 2022년 3월/ 4월 최종 개정, <https://pantheism.net/manifest/>.
- 35 해리슨, 범신론의 요소, 85.
- 36 철학으로서의 자연주의에 대한 간결한 요약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자연주의 - 철학," 2017년 6월 14일 마지막 업데이트, <https://www.britannica.com/topic/naturalism->

[philosophy](#)를 참조하십시오. 자연주의의 세계관 가정에 대한 요약과 비판은 제프 마이어스와 데이비드 노에벨, 시대의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경쟁적 세계관에 대한 설문 조사 (매니토 스프링스, CO: 정상 회의 사역, 2016), 75-96.

- 37 마가렛 베르트하임, 리처드 도킨스와의 인터뷰, 믿음과 이성, PBS, 1998, <https://www.pbs.org/faithandreason/transcript/dawk-frame.html>.
- 38 타데우스 메츠, "삶의 의미",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23년 5월 8일 접속,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22/entries/life-meaning/>.
- 39 사회적 다윈주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사회적 다윈주의", 2023년 5월 16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britannica.com/topic/social-Darwinism>를 참조하십시오.
- 40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 조건: 지식에 대한 보고서*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주: 미네소타 대학 출판부, 1984), 7.
- 41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낸시 피어시, *총체적 진실: 문화적 포로에서 기독교 해방* (일리노이주 휘튼: 크로스웨이북스, 2004), 114를 참조하십시오.
- 42 이 관찰은 마이어스와 노에벨, *시대의 이해*, 264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43 데넷의 책에 대한 로티의 리뷰는 리처드 로티, "크레인과 스카이훅", *링구아 프랑카* 5, no. 5 (1995년 8월), <http://linguafranca.mirror.theinfo.org/9505/rorty.html>를 참조하십시오.
- 44 토마스 R. 슈라이너, *로마인*, 2판(그랜드 래피즈, MI: 베이커북스, 2018), 429.
- 45 라이켄, *기독교 세계관*, 71.
- 46 꾸란 7:12-13, 18:50, 38:75를 또한 참조하십시오.
- 47 꾸란 30:30, 43 및 사히 무슬림, 46권, 하디스 40.
- 48 이슬람의 고통 이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고통과 악의 문제", Patheos, 2023년 3월 6일 접속, <https://www.patheos.com/library/islam/beliefs/suffering-and-the->

[problem-of-evil](https://fountainmagazine.com/2005/issue-50-april-june-2005/good-and-evil-in-islam) 또는알폰스 두간, "이슬람의 선과 악", *The Fountain Magazine*, no. 50 (April-June 2005), <https://fountainmagazine.com/2005/issue-50-april-june-2005/good-and-evil-in-islam>를 참조하십시오.

- 49 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야톨라 마흐디 하다비 테헤라니, "질문 18: 사탄과 진의 힘" 믿음과 이성(지혜의 현관 문화원), <https://www.al-islam.org/faith-and-reason/question-18-power-satan-and-jinn>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참조하십시오.
- 50 마이클 레빈, 범신론: 신에 대한 비신론적 개념 (뉴욕: 루틀리지, 1994), 209.
- 51 베네딕트 드 스피노자, "제4부: 인간 속박, 또는 감정의 힘", *The Ethics*(1677;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2017년 12월 11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gutenberg.org/files/3800/3800-h/3800-h.htm>.
- 52 덴 크레이, "신 대 과학, 리처드 도킨스와 프랜시스 콜린스를 덴 크레이가 인터뷰," *종교와 과학의 학제 간 백과사전*, 2006년 11월, <https://inters.org/Dawkins-Collins-Cray-Science>.
- 53 크리스토퍼 히친스, "종교는 모든 것을 독살한다," *Slate*, 2007년 4월 25일, <https://slate.com/news-and-politics/2007/04/religion-poisons-everything.html>.
- 54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 특징, 세계관적 함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어스와 노벨, *시대의 이해*, 147-71를 참조하십시오.
- 55 마이어스와 노벨, *시대의 이해*, 147-71.
- 56 예를 들어, 포스트모던 정신과 의사 아담 필립스는 윤리적 경계는 "교황주의와 제국주의적 자기 확대의 한 형태"라며 "어떤 성인도 다른 성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이나 사회도 다른 사회 집단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이어스와 노벨, *시대의 이해*, 241.
- 57 R.C.에서 인용 스프라우울,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2020년 11월 30일, <https://www.ligonier.org/learn/articles/what-does-word-gospel-mean-new-testament>.

- 58 웨인 그루템, *조직 신학: 성경 교리 입문*(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존더반, 1994), 580.
- 59 맷 슬릭,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 CARM, 2008년 12월 12일, <https://carm.org/islam/the-five-pillars-of-islam>.
- 60 지하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스마 아프사루딘, "지하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23년 5월 12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britannica.com/topic/jihad>; "지하드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하드란 무엇입니까?" 알 이슬람, 2023년 6월 7일 접속, <https://www.alislam.org/question/what-does-jihad-mean/>; 맷 슬릭, "지하드: 거룩한 투쟁인가, 거룩한 전쟁인가?" CARM, 2008년 12월 12일, <https://carm.org/islam/jihad-holy-struggle-or-holy-war/>를 참조하십시오.
- 61 레빈, *범신론*, 255.
- 62 해리슨, *범신론의 요소*, 101.
- 63 자세한 논의는 메리 포플린, *현실은 세속적인가? 네 가지 글로벌 세계관의 가정 테스트* (일리노이주 다운누스 그로브: 인터바시티 프레스, 2014), 166-67를 참조하십시오.
- 64 해리슨, *범신론의 요소*, 85.
- 65 "휴머니스트 선언문 I,"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 2023년 5월 8일 접속, <https://americanhumanist.org/what-is-humanism/manifesto1/>.
- 66 리처드 도킨스, "Covid의 숨겨진 이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과학입니다." 펭귄 랜덤 하우스, 2021년 3월 1일, <https://www.penguin.co.uk/articles/2021/march/richard-dawkins-hope-covid-science.html>. 같은 글에서 도킨스는 과학이 삶의 목적과 관련된 철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과학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존재하는 지 뿐만 아니라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줍니다."라고 썼습니다.
- 67 "휴머니스트 선언문 II,"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 2023년 5월 8일 접속, <https://americanhumanist.org/what-is-humanism/manifesto2/>.

- 68 도킨스, "코비드의 숨겨진 이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과학입니다."
- 69 로버트 휴이슨, "6장: 과거를 위한 미래", *유산 산업에서: 쇠퇴의 기후에 처한 영국* (런던: 메튜엔 앤 컴퍼니, 1987), 132.
- 70 마이어스와 노벨, *시대의 이해*, 154.
- 71 포스트모더니즘이 세계관으로 등장하기 전이지만, 20세기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전형적으로 표현한 글을 썼습니다. "인류가 황금기의 문턱에 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먼저 문을 지키는 용을 죽여야 하는데, 이 용은 바로 종교입니다." 버트런드 러셀, "종교는 문명에 유용한 기여를 했는가?", 긍정적 무신론, <https://web.archive.org/web/20090202095204/http://positiveatheism.org/hist/russell2.htm>를 참조하십시오.
- 72 미셸 푸코, "1978년 3월 1일," *안보, 인구, 영토에서: 콜레지드 프랑스 강의*, 에드. 미셸 세넬라르, 역. 그레이엄 버첼 (뉴욕: 피카도르, 2004, 2007 개정판), 195.
- 73 이 문서에서는 데리다의 해체에 대한 이해를 설명합니다. 캐서린 터너, "자크 데리다: 해체," 비판적 법적 사고, 2016년 5월 27일, <https://criticallegalthinking.com/2016/05/27/jacques-derrida-deconstruction/>.
- 74 조지 바나와의 개인 서신.
- 75 마크 코펜거와의 개인 서신. 이는 그렉 R 엘리슨이 *구현됨에서 그렉 엘리슨의 진술과 유사합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북스), 231. 죽음에 대한 엘리슨의 전체 논의는 *체현된*, 231-46.을 참조하십시오.
- 76 많은 기독교인이 죽으면(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믿는지 요약한 내용은 조 리니, "그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 가셨는가?"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다*, 2015년 4월 4일, <https://www.desiringgod.org/articles/he-descended-into-hell>.

- 77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그루뎀, *조직 신학*, 816-24를 참조하십시오.
- 78 조지 바나와의 개인 서신.
- 79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행위인 칭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칭의는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가 그리스도인에게 계산되거나 인정됩니다(회개한 죄인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 이 교리는 로마서 4:22-25, 5:19, 고린도전서 1:30, 고린도후서 5:21, 빌립보서 3:9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전가된 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존 파이퍼, "믿음과 의의 전가", *하나님을 사모하라*, 1999년 10월 17일, <https://www.desiringgod.org/messages/faith-and-the-imputation-of-righteousness>을 참조하십시오.
- 80 M.Y. 벤, "이슬람은 지옥을 믿는가?", 아울케이션, 2018년 5월 11일, <https://owlcation.com/humanities/Islam-and-Hell-Does-Islam-Believe-In-Hell>.
- 81 사히 무슬림, 책 50, 하디스 60.
- 82 꾸란 9:30, 72-73; 4:116; 5:116.
- 83 예를 들어, 꾸란 9:111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제로 알라는 신자들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 대가로] 낙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알라의 대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죽이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토라와 복음과 꾸꾸란에서 그분에게 [구속력 있는] 참된 약속입니다. 알라보다 그분의 언약에 더 충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서 계약한 거래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성취입니다." 꾸란의 지하드에 관한 다른 구절은 매트 슬릭, "지하드: 성스러운 투쟁인가, 거룩한 전쟁인가?"를 참조하십시오.
- 84 버나드 K. 프리몬, "순교, 자살, 그리고 이슬람 전쟁법": 짧은 법적 역사", *포드햄 국제법 저널* 27, 1호 (2003): 307-8, <https://securitypolicy.law.syr.edu/wp-content/uploads/2013/03/FreamonB.Martyrdom-Suicide-and-Islamic-Laws-of-War1.pdf>.
- 85 사히 알 부카리, 5권, 58장, 하디스 266를 참조하십시오.

- 86 세계 범신론 운동은 1997년에 원칙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 선언문은 2022년 3월/4월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죽음은 의식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 존재의 끝이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항상 우주의 창조와 재생의 춤의 일부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내용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과학적 범신론의 원리", 세계 범신론 운동, 2023년 6월 7일 접속, <https://pantheism.net/manifest/>을 참조하십시오.
- 87 폴 해리슨, "범신론적 죽음의 방식 - 소개", 세계 범신론, 1997년 7월 18일, <https://www.pantheism.net/paul/death/>.
- 88 해리슨, *범신론의 요소*, 88.
- 89 폴 해리슨, "자연사", 세계 범신론, 1997년 7월 18일, <https://www.pantheism.net/paul/death/natural.htm>.
- 90 도널드 S. 로페즈, "열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22년 12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britannica.com/topic/nirvana-religion>.
- 91 패트릭 올리벨, "목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23년 1월 31일, <https://www.britannica.com/topic/moksha-Indian-religion>.
- 92 해리슨, "범신론적 죽음의 방식 - 소개."
- 93 로버트 노직, *시험된 삶: 철학적 명상* (뉴욕: 사이먼 앤 슈스터, 1989), 24.
- 94 에피쿠로스, "메노에세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맨체스터 대학교, <https://users.manchester.edu/Facstaff/SSNaragon/Online/texts/316/Epicurus.%20LetterMenoeceus.pdf>.
- 95 시몬 크리클리, *죽은 철학자들의 책* (뉴욕: 빈티지 북스, 2008), xv-xvi.
- 96 질 스토퍼, "사이먼 크리클리와의 인터뷰", *더 벨리버*, no. 5, 2003년 8월 1일, <https://www.thebeliever.net/an-interview-with-simon-critchley/>.

- 97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1- 공개 1: 미국의 지배적 세계관 혼합주의,"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1년 4월 13일,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1/05/CRC_AWVI2021_Release01_Digital_01_20210413.pdf.
- 98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1 - 공개 #5: 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매혹적인 비성경적 사상 10가지," 4.
- 99 같은 책.
- 100 같은 책.
- 101 제이슨 리슬,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답변, 2011년 3월 22일, <https://answersingenesis.org/is-the-bible-true/how-do-we-know-that-the-bible-is-true/>.
- 102 리디아 맥그로우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을 "계정을 제공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두 개 이상의 계정 또는 문서 간의 주목할 만한 연결"이라고 정의합니다.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리디아 맥그로우, *잘 보이지 않게 숨겨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의도되지 않은 우연* (오하이오 칠리코트: 드워드, 2017), 12.
- 103 신약 성경 그리스어 사본은 다른 고대 문헌에 비해 수천 개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내부 일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 작성자에 따르면 약 99.5%로 추정됨). 성경의 사본 증거가 다른 고대 자료와 어떻게 비교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리처드 홀러만, "탁월한 신약 성경의 신뢰성을 위한 사본 증거," Truediscipleship, 2023년 5월 8일 접속, <https://truediscipleship.com/manuscript-evidence-for-the-superior-new-testament-reliability/>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4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요세푸스, *유대인의 전쟁* 7.1.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105 도브 스미스, "과학적 고고학 발굴로 현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또는 유대 왕의 첫 인장 인상," Phys.org, 2015년 12월 2일, <https://phys.org/news/2015-12-israelite-judean-king-exposed-situ.html>; 에일랏 마자르,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서명인가?," *성서 고고학 리뷰* 44, 2호 (2018),

<https://www.baslibrary.org/biblical-archaeology-review/44/2/7>.

- 106 브라이언 원들, "본디오 빌라도: 고고학적 전기," 성서 고고학 보고서, 2019년 10월 11일, <https://biblearchaeologyreport.com/2019/10/11/pontius-pilate-an-archaeological-biography/>. 신약 성경에서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1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107 "텔 단 비문: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증거," 성서 고고학 학회, 2023년 3월 4일, <https://www.biblicalarchaeology.org/daily/biblical-artifacts/the-tel-dan-inscription-the-first-historical-evidence-of-the-king-david-bible-story/>.
- 108 2019년 이라크 북부에서 추가 발굴을 통해 사르곤 통치의 한 측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0개의 새로운 석조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앤드류 로리, "'매우 희귀한' 아시리아 조각이 이라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2020년 1월 17일,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history/article/rare-assyrian-carvings-discovered-iraq>.
- 109 월터 카이저 주니어, "고고학은 어떻게 성경을 확증해 왔는가?" 변증 연구 성경, 편집. 테드 카발 (테네시 주 내슈빌, 테네시: 홀만 성경 출판사, 2007), 1148-49. 여호야긴 왕은 열왕기하 24장 8~9절에 언급되어 있고, 산발랏은 느헤미야 전체에 등장하며, 벨사살 왕은 다니엘 5장에 등장합니다.
- 110 존 커리드, "사해 문서 발견-75년 후", The Gospel Coalition, March 21, 2022,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dead-sea-scrolls-75-years/>.
- 111 도덕적 논증에 대한 유용한 요약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 코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 북미 선교 위원회, 2016년 3월 30일, <https://www.namb.net/apologetics/resource/the-moral-argument-for-gods-existence/>.
- 112 같은 책.
- 113 케이시 러스킨, "지적 설계에 대한 6가지 주요 증거", 디스커버리 연구소, 2021년 2월 25일, <https://www.discovery.org/a/sixfold-evidence-for-intelligent-design/>.

- 114 "지구는 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미국 자연사 박물관, 2023년 5월 8일 접속, <https://www.amnh.org/exhibitions/permanent/planet-earth/why-is-the-earth-habitable>.
- 115 월터 L. 브래들리, "과학은 성경을 뒷받침하는가?", *변증학 성경 연구*, 에드. 테드 카발 (테네시 주 내슈빌, 테네시: 홀만 성경 출판사, 2007), 831-32.
- 116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0 - 한눈에 보기: CRC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3.
- 117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3 - 공개 #1: 성경적 세계관의 발생률은 팬데믹 시작 이후 상당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3년 2월 28일, 1,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3/02/CRC_AWVI2023_Release1.pdf.
- 118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2 - 공개 #5: 기독교 목회자의 세계관에 관한 충격적인 결과,"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2년 5월 10일, 1,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2/05/AWVI2022_Release05_Digital.pdf.
- 119 조지 바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과 그 적용: 성경적 세계관 센터의 전국 설문 조사", 가족 연구 위원회, 2021년 5월 9일, <https://downloads.frc.org/EF/EF21E41.pdf>.
- 120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 한눈에 보기: 미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0년 10월 6일, 1, 5,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0/10/CRC_AWVI2020_Release11_Digital_04_20201006.pdf.
- “복음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신학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베빙턴 박사가 내린 것입니다. 베빙턴에 따르면 복음주의에는 성경주의(성경에 대한 특별한 존중), 십자가 중심주의(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강조), 회심주의(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믿음), 행동주의(노력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것) 등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빙턴, *현대 영국의 복음주의: 17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역사* (런던: Routledge, 1989), 2-3를 참조하십시오.

- 121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 한눈에 보기: 미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재정의합니다", 3.
- 122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0 - 한눈에 보기: CRC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3.
- 123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0 - 최종 공개 #12: 세계관 재구성을 통한 미국 회복,"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0년 11월 10일, 2,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0/11/CRC-AWVI-2020-Release12-Restoring-America-by-Reframing-Its-Worldview.pdf>.
- 124 같은 책, 4.
- 125 바나,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과 그 적용", 6.
- 126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2 - 공개 #6: 복음주의 목회자의 절반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그 비율이 더 낮습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2년 5월 24일, 1,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2/05/AWVI2022-Release-06-Digital.pdf>.
- 127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0 - 최종 공개 #12: 세계관 재구성을 통한 미국 회복," 1, 5.
- 128 프란시스 A 웨퍼, 작은 사람들 (일리노이주 휘튼: 크로스웨이, 2003), 66.
- 129 낸시 피어시, 너의 몸을 사랑하라: 삶과 성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베이커 북스, 2018), 277를 참조하십시오.
- 130 조지 바나, "미국 세계관 인벤토리 2023 - 공개 2: 연구 결과, 성경적 세계관 개발을 위한 최고의 출발점 확인,"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 연구 센터, 2023년 3월 14일, <https://www.arizona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3/03/CRC-Release-2nd-2023-Final.pdf>.

FRC 선물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성경적 렌즈를 통한 문화 참여

성경적 세계관 센터는 성경적 세계관을 성장시키고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 가족,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가족, 지역 사회, 공공의 광장에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frc.org/worldview*를 방문하십시오.**

최신 CBW 동영상, 기사, 간행물 및 인터뷰를 보려면 [이](#)를 클릭하십시오.

어떻게 보시나요?



FRC의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화적, 정치적 질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자료와 더 많은 정보를 frc.org/worldview에서
확인하세요.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누구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씨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 우리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희망이 있습니까?
-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러한 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신념과 신념의 집합인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관
소개”에서는 독자들이 배우게 될 내용을 살펴봅니다.

-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 완전히 정립되고 일관된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
-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세계관 이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답하는 방법
- 성경적 세계관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하는 이유
-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방법



frc.org